

**아태지역 통계정보관리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결과 보고**

2011.7

통계정보국 이선희

1.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회의명: 아태지역 통계정보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회의
(Expert Group Meeting on opportunities and advantages of enhanced collaboration on statistical information management in Asia and the Pacific)
- 기간: 2011년 6월 20일~22일
- 장소: 태국 방콕
- 회의 주체: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참가자: 아태지역 12개국 대표(호주, 캄보디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태국, 바나투), 국제기구 관련자(UNSE, ILO, UNESCO, ADB, OECD, SPC, SESRIC), ESCAP 관련자 등

□ 회의 배경 및 목적

-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통계기관의 전략이 중요해지며, 특히 국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0년 12월 개최된 ESCAP 통계 위원회에서는 아태지역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을 위한 2020년까지의 전략 목표를 수립
 - 특히 업무프로세스 표준화와 국가통계기관간의 지역적 협력이 중요 이슈로 부각
- 이번 전문가 회의는 아태지역의 통계정보관리 관련 협력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ESCAP 주관으로 열린 첫 번째 실무자 회의

□ 회의 프로그램

2011년 6월 20일(월)	
기조 연설	국가통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 환경을 형성하는 방법(Brian Pink, ESCAP)
국가 사례 발표	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카자흐스탄, 태국, 바나투, 중국, 호주, 필리핀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기관에의 기대: 각 국가통계기관의 고객과 기대되는 생산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 - 도전: 통계생산과정과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각 국가통계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 문제해결: 국가적 관점에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과 통계학자, 정보통신 직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적 관점에서의 해결방법은?
2011년 6월 21일(화)	
표준 업무프로세스 모델 및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BPM 소개(Steven Vale, UNECE) - DDI 소개(Francois Fonteneau, Paris21)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툴킷 소개(Gaye Parcon, Paris21) - SDMX 소개(Brian Studman Director, 호주통계청)
지역간 협력 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IS와 METIS 사례(Steven Vale, UNECE) - HLG-BAS(High-Level Group for Strategic Directions in Business Architecture in Statistics) 사례(Brian Studman, 호주통계청)
분임토의	<p>분임1: 국제통계의 개발</p> <p>분임2: 국제통계의 적용</p> <p>분임3: 국가통계기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법(국제통계를 적용하기 위하여)</p>
2011년 6월 22일(수)	
토의1	통계정보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아태지역 협력 방법 제안
토의2	<p>결론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의 각 통계기관장에게 보낼 공통적 메시지 도출 - 결론

2. 회의 결과

□ 아태지역 통계기관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 회의의 최종 결론으로 각국 통계기관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작성

. 각 통계공동체는 공동의 비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통계가 사회의 수요와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We urge the statistical community to engage more proactively as agents of change in developing visions and partnerships with traditional and new partners to ensure that official statistics remains relevant to society and continue to add value to development.)

. 국가통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계정보시스템의 현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시스템 현대화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계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이다.(We recognize that innov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breaking away from silos and systematizing flows of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meeting present and future needs for official statistics; we consider the modernization of our systems not an end in itself but a strategy for improving development outcomes.)

. 최근 떠오르고 있는 통계표준을 활용하면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GSBPM을 장기적인 전략 구축과 기획에 활용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다.(We acknowledge the strategic value of the emerging use of statistical standards for improved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of transformation efforts; in particular, we recognize the value of the GSBPM as a tool for systematically planning and developing long-term strategies for the modernizat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 정보·경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한 지역간 협력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중요하다.(We believe that enhanced collaboration, including sharing of information, experience,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region and beyond,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and continuous improvements.)

. 통계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하다.(We recognize that the uptake of modernization efforts by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requires advocacy at all levels.)

. 통계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서 통계기관장은 물론 각 전문기관의 장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통계정보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IT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We recognize the need for champions to advocate modernization efforts across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and the different professions involved. In this regard, we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profile of the role IT plays i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for transformation processes to succeed.)

. 국가 의사결정자들에게, 통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높은 관리자들의 인지과지지, 그리고 적절한 자원(예산)의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We bring to the attention of national decision-makers that the transformat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s requires recognition and commitment at the highest levels, and allocation of appropriate resources.)

□ 다음 단계(Next Steps)

○ 국가적 노력 강화

- 각 국가통계기관은 통계정보관리 과정에서 국제표준을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

○ 지역적 협력 강화

-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기구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RCM)를 설립
- MSIS나 METIS와 유사한 기술 포럼을 개최하며 특히 DDI, SDMX 등 국제표준의 아태지역 전파에 기여

- 아태지역 협력기구 및 기술포럼은 ESCAP 통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
- 아태지역 협력기구는 METIS, MSIS, HLG-BAS 등 기존의 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하며 전자포럼은 UNECE 및 SPC에서 운영

○ 추진계획

- 아태 통계기관장 세미나(The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Seminar for Heads of NSOs): 2011년 12월
- 18회 통계활동조정회의(The 18th session of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2011년 9월
- 2회 아태 통계개발협력 회의(The 2nd meeting of Partners for Statistical Development in Asia-Pacific): 2011년 9월

3. 시사점

- 참여한 각 국가간의 수준이 달라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움
 - 각국의 수준을 파악하여 통계정보시스템 수준이 낮은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 한국은 지원받기보다는 지원하는 입장
- 단기적으로는 위키 운영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장기적으로는 MSIS의 보조적인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아태지역 위키는 MSIS 위키를 참조하여 만들어질 것이며, MSIS 위키의 보조계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검토 중
 - 아태지역 통계협력기구와 MSIS의 논의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긴밀히 연계하여 앞으로의 방향 진행

<첨부> 토론 내용 요약

□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국가통계 수요의 변화

- IT와 인터넷의 발달로 다음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
 - 집계·가공 이후의 통계자료를 더 빨리 공표할 요구
 - 맞춤형 된 자료, 소지역 통계에 대한 요구
 - 더 세부화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대한 요구
 - 더 복잡한 지표 및 사용자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통계 정보를 소통할 것에 대한 요구
- 국가통계기관은 다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맞춤형된 인터페이스 제공: 단순히 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 대중(tourist), 혹은 업무를 위해 통계를 필요로 하는 공공·민간(harvester), 매우 세분화된 자료를 원하는 연구자(researcher)로 나누어 웹 툴 및 인터페이스 생성
 -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국가통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경향이 커지므로, 사용자가 통계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발생
 - 사용자와의 신뢰성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정보 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통계기관이 직면하는 도전

- 사용자 수요와 정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음의 도전에 직면
 - 통계데이터의 연계 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 생산 기관 간 강한 협력이 필요
 - 분산통계국가의 경우, 중앙통계기관의 강제력이 부족해 통계 정보표준 적용 등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세분화된 마이크로데이터와 소지역데이터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비밀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

-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유연하고 성능 좋은 통계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이 필요
- 국가통계의 사용자가 다양해지며 단순히 통계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이 커짐

□ 표준 모델과 용어의 부상

○ 다수의 표준 및 GSBPM 활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 GSBPM은 통계 생산 과정을 일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통계절차 및 용어 표준화, 통계기관과의 시너지, 벤치마킹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 GSBPM은 데이터 출처와 관계 없이 모든 공식 통계 생산자 및 국제기구에 적용 가능하며, 센서스, 행정자료통계 등에도 적용 가능
- GSBPM을 활용함으로써 통계기관이 topic-based 통계 생산에서 process-oriented 통계 생산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
- DDI는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틀으로써,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IHSN(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NADA(National data Archive) 등이 있음
- DDI는 데이터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조사자료 및 센서스, 행정자료 등을 정리하여 집계하는 데 활용 가능
- SDMX는 통계의 정의와 분류, 표 구조, 메타데이터에 이용되는 표준으로 DDI와 함께 쓰일 수 있음(SDMX는 집계 통계, 특히 시계열 통계의 작성과 교환에 쓰이며 DDI는 마이크로데이터에 집중)
- SDMX는 통계데이터의 배포와 메타데이터, 서로 다른 IT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
- GSBPM, SDMX, DDI 외에도 새로운 국제 통계 표준이 개발 중(대표적 예: GSIM, Generic Statistical Information Model)

□ 통계정보시스템 관련 기구 현황

- 이미 존재하는 국제기구로 MSIS, METIS, HLG-BAS를 아태지역 통계정보 협력의 롤모델로 논의
 - MSIS는 1980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며, UNECE, Eurostat, OECD의 지원으로 운영
 - MSIS는 정기적인 회의와 MSIS Wiki(사례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운영되는 포럼)의 운영으로 교류
 - MSIS는 매년 각국 통계기관의 IT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UN 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
 - SAB(Sharing Advisory Board)는 통계 소프트웨어의 공유를 촉진하는 기구로, MSIS 회의 및 Wiki에 참가하여 활동
 - METIS는 메타데이터 이슈 논의 및 국제 기구의 데이터 수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하며 UNECE, Eurostat, OECD의 지원을 받음
 - METIS는 2-3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하며 UN 국가 및 국제기구는 모두 참여 가능
 - METIS는 공용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며 관련 자료는 METIS Wiki에 공개
 - HLG-BAS는 통계생산과정의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절차적·기술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기구
 - HLG-BAS는 하이레벨 포럼(director 이상)으로서 전략적 관점을 공유하며, MSIS, METIS, SAB의 논의를 가이드

□ 아태지역의 통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 소그룹 분임토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
 - 상당수 아태지역 국가에게 통계정보시스템의 현대화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 따라서 첫 번째 목표는 통계정보시스템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

- 특히 RCM(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아태 지역 협력 기구)은 각 국가통계기관이 자국 정부에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도와야 함
- RCM은 각국 국가통계기관의 기관장을 가장 중요한 설득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통계 사용자들에게도 홍보가 필요
- 홍보의 일환으로 각국 우수사례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각국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의 번역을 진행해야 함
- 각국 국가통계기관 내에 표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아태지역 위키를 만들어 정보 공유(MSIS Wiki를 벤치마킹)와 함께 표준 개발 등을 위한 기술 워크그룹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도 있음
- MSIS 그룹과 긴밀히 연계하며 특히 MSIS 사례로부터 많이 배워 중복되는 노력이 없도록 조치
- 아태 각국의 통계정보시스템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각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